금주일언 대저 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능히 마침내 이(利)를 이루기에 이른다 진실한 견해를 몸으로 행하나니 이같이 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 〈법구경·애신품 262절〉

東大新聞

발행인 겸 편집인 민병천
주간 차수련
부주간 이만
편집국장 이익성
편집장 이석종

펴낸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45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 (가) 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3월30일 (수요일) 1

서원장 퇴진 농성 승려 연행
조계사 경내에 경찰 투입돼

서의현 현 총무원장의 3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늘(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29일 서의현 현 총무원장의 3임을 반대하며 조계사 내에서 농성중이던 범승가 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 소속 승려와 본교생 등 한국대학생 불교연합(이하 대불련) 소속 학생 2백여명이 경내에 투입된 전투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관련기사 4면〉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경 전경 13개 중대 1천5백여명을 조계사 정문과 후문등 3곳을 통해 경내로 투입 불교회관 내에서 농성중이던 승려 4백여명을 해산시켰다.

이과정에서 승려들과 경찰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승려 40여명이 부상당해 인근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여명이 강제 연행됐다.

또 경내에 남아있던 승려 학생등 2백여명은 새벽까지 농성을 계속했으나 오늘 새벽 다시 투입된 전경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8일 관할 종로경찰서에 서의현 총무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경찰병력의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29일 오후 현근 조계사 주지와 범종추 효림 위원장은 세차례에 걸쳐서 총무원장 퇴진과 종단개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또 오후 3시경부터는 범종추 소속 승려 4백여명이 팔목에 심지를 박고 불을 태우며 서원하는 '연비공양식'을 열고 현 종단 집행부의 퇴진과 종단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범종추는 오후 9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병력투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종단운영권의 원로회의 위임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서원장, 원로회의, 범종추 등 삼자 명의로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경에는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스님과 정우(서울 구룡사 주지) 스님등 2명의 종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종회의원들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암 조계종 종정은 이날 오후 "30일 종회를 보류하고 원로중진 스님들이 중심이돼 종단개혁을 이루도록 하라"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했다.

서암종정은 교시를 통해 △총무원장 선출은 대중의 공의를 수렴해 공명정대 한 절차로 시행하고 △전 불자는 더욱 수행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지난29일 조계사에서 법종추 소속 승려들이 서의현 총무원장 3선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원장측은 오전 6시 30분경 조계사 서쪽문인 '해탈문'을 통해 승려와 민간인 복장의 청년 3백여명을 동원해 불교회관 안에있는 범종추 소속 승려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서 원장측은 불교회관 4,5층에서 출입구를 막고 있던 범종추측 승려들에게 소방호수 5개로 물을 뿌리고 농성중인 승려들을 몰아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30여분간 격렬한 마찰이 있었으며 범종추 소속 해경(본교 경주 석림회장) 스님이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오늘 새벽 경찰의 강제 연행직후 종회의원 40여명이 조계사로 들어 갔으며 종회는 예정대로 치뤄질 것으로 전망돼 서원장의 3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앞으로 불교계는 다시 한번 혼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불교대 종단개혁 집회

상무대 비리 진상규명및 서의현 총무원장 3임반대와 종단개혁을 위한 청년불교도 집회가 지난 25일 한국 대학생불교 연합회와 본교 불교대 학생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불상앞에서 있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상무대 이전 공사자금 부정유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에 앞서 현 서의현 총무원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문옥 전 감사관은 규탄연설에서 종헌 개정을 통해 불교 정상화를 꾀하자고 말하고 "학생들이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학생들 10여명은 불상앞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강성원여사 1천만원 전달
대한교보동문회 4백만원 기부

강성원여사는 개교1백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학술문화관의 법당내불상봉안 동참금 1천만원을 지난17일 민병천총장에게 전달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이자 본교 정태섭(역사교육)교수의 모친이기도 한 강여사는 기부하게 된 동기에 관해 "동국대는 아들의 모교인데다 현재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곳으로 늘 감사히 생각해왔다."며 "불상을 모신다는 계획을 듣고 성의를 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당국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대한교육보험동문회(회장=이상희 시스템개발팀장·전산80졸)는 지난 22일 본교를 방문하여 송석구부총장에게 70여명의 회원들이 기부한 성금 4백만원을 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는 직장동문회로서는 최초로 기금을 기부한 것이다.

청동기 암각화 26점 발굴
관련연구 중요한 단서될듯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학과장=김길웅·고미술사학) 유적조사단은 지난 20일 금장대(본교 후문 입구부근)에서 청동기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 26점을 발견했다.

신라시대 절터를 찾는 작업중이던 한정호(고미사 조교), 이동헌(고미사2), 윤소영(고미사 3)양등에 의해 발견된 이번 암각화는 총길이 약 9m, 높이 약1.8m로 방패형동기모양 인물상 및 화문등 총26점이 새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고미술사학과 학과장 김길웅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암각화는 울산군 천전리, 영일군 칠포리등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관련성을 엿볼 수 있으나 다른 암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상 및 화문등 독특한 도안을 새기고 있어 관련 암각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원노조 2차교섭 열려
학교당국 임금 9.8%인상 제시

직원노조(위원장=장운·학생처)측과 학교측간이 2차 단체 교섭이 지난 24일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에서 임금협정안은 노조측에서 제시한 호봉간의 차액을 늘리고 직급간의 차액은 줄인다는 안에 대해 학교측에서 기본원칙을 동의해 보수체계개편은 다음 3차협상에서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총인상률은 학교측에서 선제시하는 교섭방식으로 하여 학교측에서 9.8%인상안을 내놓아 3차 교섭이 끝난후 직원노조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기타 안건으로 남여 고용평등법 제11조에 명시된 '육아 휴직제도'와 국제교육개방을 대비한 직원 장기해외 연수(6개월)등은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3차교섭에서는 오는 31일 12시로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교무처
증명서 발급 확대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오는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로서 서울캠퍼스 학적과에서 경주캠퍼스 '90년 2월이후 졸업자의 졸업·성적증명과 재학생의 재학·성적·졸업예정 증명 및 일반대학원 '87년 2월 졸업자이후 학위수여·성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캠의 학적과에서도 서울캠의 학적증명을 동일하게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학적과의 한 관계자는 "서울캠과 경주캠의 졸업자및 재학생이 먼거리에서 증명발급받던 불편을 해소할 뿐아니라 온라인 처리발급으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부 동국소식 발간

공보부(부장=김용철)는 학교소식지 동국소식 1호를 지난 25일 발간했다.

매월 1회 발간 예정인 동국소식은 8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학교홍보의 내용을 담고있다.

교수동정

▲송석구(철학)=지난달초 수덕사에서 열린 한국동양철학회 동계 학술발표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피선.

▲김태홍(무역학)=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학술토론회에 참석, '한국투자협력'에 관한 주제발표

▲권영식(산업공학)=일본 동경에서 지난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Jepan Korea Joint Conforence on Export System 회에 참석하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ankruptey Prediction Accuracy of Statistic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MDA, ACLS, and Nearl Network'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

본사사령

◇임 수습기자
▲박대용 (경상대 무역1)
▲차창영 (공과대 전자1)
▲황산덕 (공과대 전자1)
▲김명희 (인문대 일문1)
▲김현일 (인문대 철1)
▲이현주 (자연대 가교1)
▲박묘선 (상경대 경제1)
〈이상 3월30일자〉

보리수

생명·자유·자비·광명의 기호

卍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표지다. 이 표지를 한문으로 표기하려면 일만만(萬)자를 쓰는데 이는 만자가 모든 좋은 것이 충만된 길상만덕(吉祥萬德)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표지의 기원은 인도전설에 나오는 비슈누신의 가슴에 있는 '감긴 털'(旋毛)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문명이 찬란했던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이 표지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반드시 인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화인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十자나 卍자는 본래 동일한 종교적 기호였다고 한다. 즉 十자가 좌측(또는 우측)으로 꼬부라진 것이 卍자이고, 卍자가 곧게 펴진 것이 十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호는 옛날부터 종교적으로 소망의 상징적 표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표지가 불교와 최초로 인연을 맺게된 것은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성도(成道)일화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수도할 때 풀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그 재료가 된 풀의 끝이 만자 모양의 길상초(吉祥草)였다고 한다. 이후 이 표지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부처님께서 입멸(入滅)하신 뒤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보통사람과 다른 32가지 신체적 특징(32相)이 있다고 믿었다. 그 중 하나가 '가슴에 푸른색 털이 위를 향해 오른쪽으로 꼬부라져 있는 것(毛上向上相)'이었다. 불상을 조성하면서 가슴에 이 표지를 그려넣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자 뜻하는 길상만덕에 대해 현대의 불교학자들은 매우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卍자의 가운데 교차점을 떼어내면 영어의 L자 4개가 나오는데 이 L자는 각기 생명(Life) 자유(Liberty), 자비(Live), 광명(Light)을 뜻하는 머리글자라는 것이다. 다소 작위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불교의 이상을 표현하는데 딱 들어맞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나치 독일의 이 표지를 기장(旗章)으로 사용했던 사실이다. 생명과 자유, 자비와 광명의 상징이 죽음과 억압, 폭력과 암흑의 상징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불교에서는 만자표지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가, 십자군전쟁이 있었다고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 아니듯이 나치가 만자표지를 썼다고 불교 본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만자가 갖는 생명과 자유, 자비와 광명의 사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오늘의 불교적 현실이 아닐지.

洪思誠

알림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명
②응시자격 : 1학년 남·여재학생
③모집분야 : 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④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⑤원서접수 : 서울 4월18일 (월)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 서울 4월18일 (월)오후5시
⑦시험과목 : 1차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원자는실기)
2차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단위전지 운전특성 실험과정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무공해 에너지는 과연 존재할까?"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 딛는데 성공한 아폴로 우주선,
우주시대의 서막을 올린 그 전기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연료전지였습니다.
연료전지는 1802년 영국의 데비스경에 의해 고안되어 아폴로 우주선에 이용되었고,
1960년대부터 상업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미국, 일본등지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연료전지발전이란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전기와 물 그리고
열을 얻을 수 있는, 전력사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큰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공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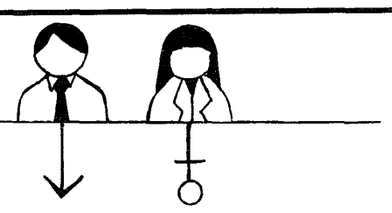
완전한 무공해 에너지는 없을까?
저희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전력연구팀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하여 국민 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연료전지 연구팀
책임연구원 이 창 우
선임연구원 임 희 천

이달의 여론조사

동국인 '성'인식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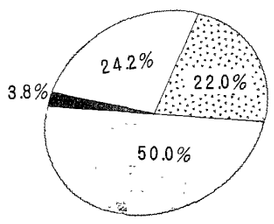
성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느정도 개방적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것만은…'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본사에서는 본교 재학생 2백여명을 대상으로 이달의 여론조사를 실시, 동국인의 성별 인식도를 알아보았다.

다음 두 문항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이다.

〈편집자〉

문 하나 남녀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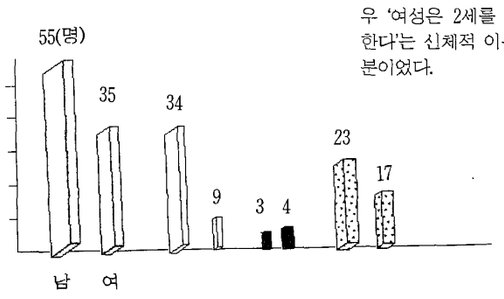


남녀 모두에게 흡연이 괜찮다고 답변한 사람이 50%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남녀 모두 안된다는 답변도 22%여서 남자나 여자나 같은 입장이라는 대답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반면 남자만 괜찮다고 하는 생각도 22.4%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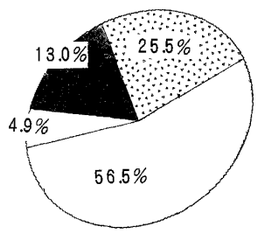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만 괜찮다고 응답한 수가 남성 응답자의 경우(29.5%) 여성 응답자(1.3%)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남자니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남학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렇게 답변한 남성응답자의 경우 '여성은 2세를 위해 흡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체적 이유를 든 학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남녀모두 괜찮다. / 남녀 모두 중요하다.
남자만 괜찮다. /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자만 괜찮다. /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남녀모두 안된다. / 남녀 모두 중요하지 않다.

문 둘 남녀의 결혼전 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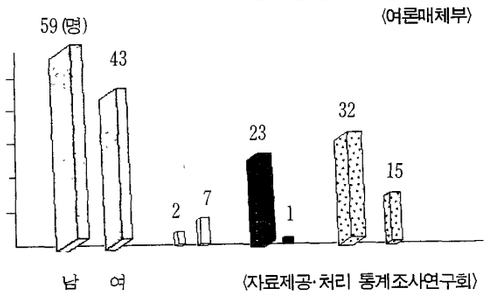
결혼전 순결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5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흡연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순결문제에 대해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13%로 적지 않는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이역시 여성 응답자는 1명만 이와같은 의견을 냈을뿐이고 대다수가 남성 응답자였다.

특히 남녀 모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사람도 전체의 25.5%나 되어서 88년도 본교 통계조사연구회의 설문조사에서 보였던 3.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여론매체부〉



〈자료제공·처리 통계조사연구회〉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UR대처부재 비판기사 없어

요즘 전국의 대학들이 UR문제로 들끓고 있는데 유독 동악의 교정만이 너무나도 조용하다. 그 이유는 각과 학생회, 단대 학생회의 조금씩의 움직임들을 총학생회에서 받아 안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고 비판하는 동대신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144호(3월16일자)에는 사회단신에 잠시 보도의 차원에서 그쳤을뿐 UR에 대한 분석, 재협상 불가론의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도신문의 비판과 본교 총학생회의 쌀수입 개방에 대한 주도적 대처의 부재를 비판하는 기사를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UR의 국회비준이 4월8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학우들에게 UR에 대한 올바른 사실의 보도와 "정부는 재협상·국회는 비준거부·국민은 국민투표"의 가능성 공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악의 진실된 목소리인 동대신문이 발 벗고 나서주기 바란다.

김 경 천
〈이과대 통계학과·본사 모니터〉

열린글터…독자참여 활성화 되길

지난호(1144호) 동대신문을 보면, 2면 열린글터란이 하나의 소재, 즉 동아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투고된 것을 볼 수 있다.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간에 열린글터가 이름과는 상반되는 모음글터(?)가 된듯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열린글터는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들의 지면이자 학우들에게 쉽게 와 닿을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동대신문의 유일한 독자 참여 공간인 이곳이 학우들의 무관심으로 매번 기자들을 곤란하게 한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곳은 무엇보다도 '제 몫찾기'연습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며 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 할 줄 아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편의 오늘을 사는 동국인이 최초의 경주 동문이라 무척 반가웠으며 작고 소박하게 살아 가는 김주헌 동문이 참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훌륭한 동문을 발굴하는 일이 기자들은 물론 우리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 경 미
〈법정대 법학과〉

초대 시

박스에는 아무 것도 없다

김 강 태
〈시인·국문 79졸〉

없다 박스가 아무 데도 없다
내가 찾는 그 박스가 없다
아내도, 밀음이 보름이도 모른다 한다
어쩜 밖에 버렸을지 몰라, 해서 뒤지니
쓰레기장에도 박스같은 게 없다
도무지 박스조차 없
다 박스 나부렁이도 없
다 도대체 누가 가져갔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박스 소리
끌리는 소리가!
어어, 끌려가는, 끌려오는 소리가!
바닥의 혀 닿는 소리가,
밀을 훑치는 무거운 소리가,
박스의 살갗이 허물 벗는 소리가

가벼운 소리가 뇌리로 가벼이 튐입,
뇌리를 때리고 후벼판다
그래 언젠가 마구 쏟았던 박스 언젠가
내장을 비우며 창백하게 구겨지던 박스
빈 박스의 나날이 곽곽 폐부를 찌른다
나의 그리운 박스
투명빛 우울한 박스는 어디 갔나
박스는 어디에?
뉘런 살갗, 덕지덕지 묻은 유릭테잎들

난 지금 망가져 쓰려, 실은 그동안
너무 몰랐어 거기엔 벌써 누구도 없었지
토굴(土窟)같은 박스를 찾으러 가야할 걸
너저분히 널린 박스 입을 들여다보지만
나의 박스, 나의 영원한 너는 없을 것
얼핏 설핏
거기 고이는 빈 고요, 이따금 출렁임들

시작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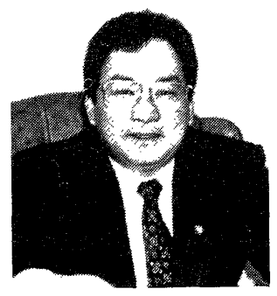
그립다. 국문과 강의실, 석조관, 백목련, 교지 편집실, 아줌마집, 그 해 비오는 날. 우리들의 낮선 구호와 구호. 비오는 날, 학교로 갔더니 그냥 그대로 다 있었다. 다만 내가 있었던 그 시간만이 문득 다가와 빗가닥으로 어슬어슬, 동그라미 공간을 그려대었다. 깡패형, 누군가가 뭣께서 불렀다. 젊은 70년대産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아무 것도 없다. 망할 놈의 그도, 그녀도 없다. 놈들.

우리 학교가 참 잘됐으면 좋겠다. 그저 마음 깊이 아껴 두었던, '좋아한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 형들, 거의 매년 열리는 '여름 창작교실'과 가을 '科 동문, 재학생 체육대회'때 만나면 좀 어때요. 막걸리 마시지 않겠수?

작가약력 '78년 '한국문학 신인상' 등단, 개인시집 '물의 잠' '혼자 흔들리는 그네' '숨은 꽃' '시편 명상' '모른는거 물어봐' '비밀번호'. 현재 덕원여고 교사, 문학아카데미 회원.

동/문/칼/럼

삶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 사회의 구조상 대학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관심사를 떠나 사회적 관심사와 첫 접촉을 가능케 해주는 장이다. 실제로 대학을 거친 많은 사람들은 대학입학과 함께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집단적 문제점과 치유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되며 자신이 판단한 사회의 진단에 따라 자신이 감당하여야할 사회적 자리 매김을 하게된다.

필자는 유신 말기에 동악의 식구가 되었다. 당시 암울하였던 사회 분위기는 지면을 통하여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 시기를 직접 체험한 세대에게 그시기는 참으로 숨막히는 공포였다. 그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80년의 봄'이 왔던 것이다. 그것도 잠시뿐 전경의 군화발자국이 조용한 캠퍼스, 그리고 개인에게는 장래에 대한 꿈의 동산인 캠퍼스의 지축을 흔들었다. 그 와중에서 뜻있는 동악인들이 하나 둘 타의로 대학을 떠나게 된 것이다. 졸업후 11년이 흐른 지금 필자는 아직도 그 군화발자국소리로 잠을 깬다. 이것은 '역사의 폭력'이라고 본다. 이것은 그릇된 역사가 개인에게 준 치유하기 힘든 상처이다. 지나간 일이라고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억울한 것은 지금은 버젓이 서점가에 판매되고 있는 책들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군부정권이 무차별하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여 전과자로 만들고 단지 정권의 부도덕성을 비판한 사실만으로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얼마전 '80년의 봄'당시 학생회관에서 철야로 집회를 가졌던 친구들이 모인 적이 있다. 어느새 한, 둘의 애를 거느린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으나 어려운 시절에 같은 교정에서 만나, 밤이 새도록 시대를 논하였던 그 젊은 시절의 열정은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모두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형태로 이던 약속한 자신의 자리를 모두 메우고 있었다. 이것은 시대와 동악이 맺어준 우정이다. 그날은 너무나도 즐거운 하루였다.

대학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장이며 사회는 대학인들이 교정을 떠나 직면하여야할 현장이고 현실이다. 대학은 대학 자체로 고유영역이 있는 반면 사회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학인들은 사회의 모순구조가 곧 자신의 모순구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해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동악에 초록이 움트고 새 식구들을 맞는 시절이다. 새식구들에게 동악의 교정이 역사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매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고 한편으로 우정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 한 성
〈변호사·법 83졸〉

동/악/광/장

목멱골

⊠ 축하합니다

■ 94년 사회과학대 힘찬 출범식을 축하합니다.
— 동악학우들

■ 익희형의 MRA ××회 회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MAR 회원 일동

■ 화공 93 유정근·송용욱학형의 공군 합격을 축하합니다.
— 종A

■ 동대신문사 제36기 수습기자 여러분 합격 축하해요. 모두들 힘내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 형들이

■ 성희의 귀빠진날(4월1일)을 축하한다.
— 성현이가

■ '잠보'의 생일을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해라.
— 귀여운 L·Y·Z

■ HAM의 영웅들 전홍철·이영학군 생일 축하하와요.
— HAM 19기들

■ 전자공 고광진(89), 유성환(89)의 생일(4월1일)을 축하합니다.
— 94새내기및 89쉰내기

■ 공과대 노래패 '목멱성' 25~27日 모꼬지를 가요. 축하해주세요.

■ 컴공과 썰성맨 생일 축하한다.
— 펭귄친구

⊠ 알립니다

■ 여학생 휴게실에 락카가 부족합니다. 여백의 공간(필요하다면 side의자를 제거하고)에 락카를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식공91

■ 용산고동문들과 함께할 수도여고동문들을 찾습니다. 다음번 동악광장에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용산동문일동

■ 휘문고동문과 조인트할 수 있는 여고를 찾습니다. 생각있는 분 012-272-5237로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 휘문고 동문회장

■ 컴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TOEFL모의 TEST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매주) 자세한 사항은 알파실 앞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 컴퓨터공학과 연구실

■ 인창·중앙(女) VS 대신·이화의 마지막 승부가 4월3일 벌어집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석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인창·중앙 동문회

■ 3월초에 교내에서 사진 많이 든 봉투 주우신분 부탁입니다. 중앙도서관 아저씨께 제발 갖다주세요.

■ 자·과·연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94신입생 남·여학생으로, 위치는 과학관 1층 이과대 도서관 옆에. 항상 열려있습니다.

■ 산공과 1, 2, 3, 4학년 연합모꼬지를 4월 1, 2, 3일 낙산으로 떠납니다. 상공인 여러분의 완벽한 참석을 믿습니다.
— 제28대산업공학과 학생회

■ 전자공학과 영우형(89)! 유럽장기순례에 건강과 성공을 빕니다.

■ 사람을 찾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요. 자신이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무언지 아십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실을 끝낸 들판에서
오직 인간만이
사과를 둘로 쪼개 나눠 먹을줄 안다"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
이것은 야학교사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가르치며 배우고자 하는 젊고 패기있는 교사를 찾습니다.
증등과정. TEL: 236-3799 오후7시 이후
— 신당야학

■ 노트를 α실에서 잃어버렸어요. 92컴공 진종욱에게로

⊠ 그리고…

■ 사학과 학우 여러분! 춘계학술답사를 무사히 마치게 성원해준 학우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 제49회 사학과학생회

■ 동국대 농구부 연대or고대 한번 이겨봅시다!

■ '까치소리'가족이 된 94새내기 여러분! 정말 환영해요. 잘 지내봅시다.
— 국어교육과 까치짱

■ 역사교육과 교육부 신입부원 동지들 멋진 대학생활 만들어 가셔요.
— 교육부 선배가

■ 공과대 풍물패 '한소리' 신입패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 4기 선배일동

온방골

⊠ 축하합니다.

■ 3월30일은 현아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날입니다.
현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基

■ 영문과 경태와 응석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영문과 S교주와 추종세력들

■ 기획부장이된 인겸이를 축하하며
— Metal Age

■ 도한아 21번째 생일 축하해.
— 시계망친 人間

■ 3월30일 태어난 뉴미야 생일 축하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병원동기 2기들 빨리빨리 몸이 낫길 기원혀!
— 천재와 choi 그리고 Ju

■ 3월29일 동·음 Mini Concert가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많이 오시구요 동대 일만 학우여러분 추카해 주셔용.
— 동음14기 珍

■ 경제 '93도한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건강해.
— 친구문희

■ 사회복지학과 2학년 김선희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 국문2 병아리

■ 새·여·사 공연 무사히 마침을 축하합니다.
— 93은석

■ 26일은 우리의 귀염둥이(?) 혜원이의 생일이었어요.
지났지만 무지무지하게 많이 축하해주세요. 축하한다.
— 나

⊠ 수고하셨습니다.

■ 이부법학과 신입생 환영회 무사히 마친것을 축하하며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부법학과 회장

■ 동음의 13·14기 그리고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14기 화이팅!

■ 한울회 여러분
M·T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11기 여러분·선배님들…그리고 동기 한울회 화이팅!!
— 집행부中

⊠ 열심히 합시다.

■ 동묵회 15기 임원단 여러분 열심히 해 보자구요. 화이팅!
— 예쁜이

⊠ 그리고…

■ 현미야!
사랑해, 이쁜 비둘기가 되렴.
— 선희가

■ 전산과 93학번여러분!
착실하게 강의에 임합시다.
— 93 M·J

■ 3월31일 관경과 야구시합이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관경과 Ace

■ 후배녀석들이 제법 열심히 답사 준비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요.
— 네가(?)

■ 서라벌다우회 16기 새로운 식구들을 환영하며 다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우회 막강 학술부장

■ 소낙비에서 4月을 맞아 6日~8日까지 '신입생 환영 영화굿'을 합니다. 신입생및 재학생 혹은 기타등등의 여러분도 많이많이 오셔서 영화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 신랑

■ Phil은 사랑.
harmony는 음악.
Phil8기 모두를 사랑해요.
— 碩

시사논단

오 홍 석
지리교육과 교수·지역환경연구소장

수도물 포기가 아닌 환경정화의 계기로

식수시판 허용배경과 향후대책

얼마전 광천수의 시판금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난 16일에는 시판허용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권을 앞세우는 관련업체의 움직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반국민의 관심사가 복합되어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여론의 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굴착에 의한 국토훼손, 불량식수의 유통에 의한 국민건강을 우려하면서 다가올 문제점을 예견하고 합당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움직이는 생물체는 물, 공기, 식량의 섭취로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므로 물없는 사막에서 생물은 서식 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물이 좋고 풍족한 강과 호수가에 인류의 문명은 꽃피웠다. 이중환이 제시한 가거지(可居地)나, 도선이 내세운 풍수지리상의 명당도 모두 질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물을 떠나 영위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물의 쓰임새는 많아졌다. 물은 소비과정에서 없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분된다. 수질오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후자이다. 이것은 생활하수, 공장폐수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옴으로써 하천의 전수계와 해상을 오염시키는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 식수원이 하천과 호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시민으로 하여금 기존의 식수원을 기피하면서 지하의 생수를 선호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물은 존재형태에 따라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분된다. 전자는 하천과 호수와 같이 땅위에 노출된 것이고, 후자는 땅속의 모든 물줄기를 의미한다. 지하수는 용량에서 바닷물에 미치지 못하나 이용가치가 큰 하천수와 호수를 능가한다.

그러므로 지표수의 이용이 부적당하거나 용량이 부족할 경우 지하수를 굴착하여 대용한다. 수질은 일률적일 수 없으나 반드시 지표수 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물은 빗물로부터 순환이 시작된다.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 눈, 우박이 된다.

이들을 통틀어 강수량으로 표현하므로 이것의 총량은 수자원의 총량에 맞먹는다. 내리는 비가 유수로서 흐르고, 일부는 땅속으로 삼투하여 지하수가 된다.

요즘처럼 공중사신으로 표현하는 산성비가 내릴 경우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삼림을 황폐시키고 물고기의 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산성비라면 그것이 삼투한 지하수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다 중금속이 혼합된다면 부정적 영향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다. 중금속은 대장균처럼 끓이거나 염소소독으로 해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극미한 양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농축되는 사이에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중금속은 광산, 공장, 농경지 등 배출원이 도처에 흩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지하삼투에 의한 피해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지표수가 오염된다 하더라도 지하수만은 청정한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은 시정되어 마땅하다.

식수의 시판과 더불어 시정해야 되고 대응해야 할 논리는 첫째, 명칭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시판되는 물을 생수로 통용하고 있는데, 이는 살아 있는 물로서 죽은 물과 대비된다. 살아있는 물이란 감로수로 표현하듯 맑고 깨끗하며 맛이 좋은 청정수를 의미한다. 새콤한 맛과 냄새가 없는 그야말로 무색투명한 것이 살아있는 생수이다. 그러므로 식수로서의 충분조건은 청정도에 있는 것이지 지하와 지상이라는 취수의 장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광천음료수는 mineral water를 한역한 인상이 짙으며 획일주의적 구태의 연함을 풍긴다. 이에 농산물의 경우처럼 시판식수에도 산지표시제를 도입하므로써 지하수가 곧 생수라는 등식을 깨는 한편, 물좋은 지역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

둘째, 환경보전이 전제된 지하수 굴착을 허용해야 한다.

지하수를 끌어올릴 경우 흙과 모래의 동반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땅속에는 토사의 배출용량만한 구멍이 생기고 함몰로서 sink hole이 드러난다. 산지의 광산지대에는 광산채굴로서 sink hole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식수채취를 위한 굴착작업이 진행될 경우 수많은 함몰지대를 낳을 것이 뻔하다. 여기에다 이미 굴착된 평지의 양수공에서 염수가 쏟아지므로써 양수공을 막는데 급급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반수축에 의한 부등침하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세째는 수질기준의 강화이다.

수질기준이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이상 항목을 세분하고 기준적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기준항목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기준적용도 엄격한 것이 추세이다.

각종 개발이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과 번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기업보다 다수의 국민편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시행하는 기준항목이 37가지인데 반하여 미국이 85개 항목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진화와 국제화는 정부의 의지와 환경적 실천을 가시화해야 한다.

네째는 유통상의 변질과 국민의 위화감을 어떻게 해결하는냐에 있다.

상온에서의 식수저장은 5~6일을 넘기지 못한다. 물통의 규격을 작게하는 것이 유통의 빈도를 높이므로 식수의 변질을 막는 길이다. 그러나 물통의 양산은 곧 쓰레기의 양산에 직결되므로 업자에 대한 환경부담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유통가격은 수도물 보다 1천5백배 비싼 점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의 물수입, 수도물의 이용가구와 비이용 가구간에 벌어질 위화감은 조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번 판정이 수도물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을 정화하여 산수가 맑은 본래의 모습으로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식수, 쏟아내는 폐수가 별개가 아니라는 환경적 시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공존의 생활무대로서 국토를 가꾸어야 한다.

사설

누구를 위한 문민정부인가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지난 25일 정부가 수정한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 이행계약서를 가트본부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그 발효 시기만을 기다리게 됐다.

오는 4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각국 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우루과이라운드는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국제규약이 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 과정 중에서 농산물 분야는 시장 개방이 농업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분야보다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농림수산부가 밝힌 수정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을 무방비상태로 수입해야할 정도로 미국등에 크게 양보하고 있음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수정협정에서 미국측이 자국에 유리하게 요구한 내용을 우리정부는 거의 다 수용했음이 밝혀져 우리측 협상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케 했다.

물론 국제협상에는 상대가 있으므로 우리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통해 상대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절충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외교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보면 우리의 이익 확보는 커녕 국가의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한심하게 대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힌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이해 관계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계획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객관적 수준이상으로 우리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다가 좌절됐다면 애초의 이행계획서를 잘못 만들었던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행계획서의 내용에는 벌무리가 없었음에도 수정하게 되었다면 정부는 졸렬한 대외교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것 이외에도 원칙과 절차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 내용이 우리의 여건에 비춰볼때 지나친 양보라고 농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했을때, 정부는 이미 국제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던 일이 며칠 사이에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재협상은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김영삼정권의 사대매국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선거당시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했던 공약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쌀시장 개방을 막아내지도 그것을 막으려는 의지도 대통령직을 걸지도 않았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아 보자는 국민의 의지마저 저버리고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보장해주는 현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서관을 진단한다

지금 중앙도서관은 이용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엔 절대적으로 열세 위치에 있다. 일반열람실과 장서의 부족등 제반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도서관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분실사고 대책은 없는가 ㊦

이야기 하나

사범대 여학생이 상기된 얼굴로 지난 25일 신문사를 방문했다.

신문사를 찾게 만든 B양의 사연은 대강 이렇다.

B양은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중앙도서관 3층 정기간행물실을 찾았다. 입구 물품보관소에 가방을 맡긴후 40분뒤 물품보관소에 가방을 찾으려고 보니 온데간데 없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보관소에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의 불성실한 태도였다. 물품보관소에 맡겨둔 만큼 책임은 그곳 근무자에게 있었지만 따지는 B양에게 돌아오는 것은 '할수 없다'는 식의 방관뿐이었다. 답답한 B양은 도서관직원들에게 항의했지만 역시 시원한 대답을 듣지못하고 '할 일없는 사람'취급만 받았다. 이후 4번에 걸쳐 도서관장과 직원들을 만난 후에야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답이었다. B양은 '얼마줘서 보내자'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일반 열람실도 아닌 지정보관소에서 분실했는데도 책임회피나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데 참을수 없었다"라며 안이한 학교행정과 직원들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B양은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B양이 분실한 가방에는 돈이나 카세트 외에도 해외배낭여행중에 만나 신세를 졌던 이들에게 보낼 선물과 강의노트, 집열쇠등 개인에게 있어 더없이 소중한 물건들이기 때문이다.

이야기 둘

B양의 경우는 물품보관소에서 분실사고를 겪은 드문 예지만 일반 열람실에서의 분실사고는 부지기수이다.

특히나 학기초 한달여 기간이나 방학 후 한달정도는 분실사고가 잦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열에 한명꼴로 분실사고경험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기자를 찾은 한 법대학생은 고시준비를 하던 중 '족보'라 불리우는 시험예상문제와 자신이 3년간 정리해온 노트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번 일로 그 학생은 계속 고시공부를 해야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저같은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도서관 당국이나 학생회에서 나서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 23일에는 일단의 학생들이 분실사고대책을 강구하라며 도서관 직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한 일도 있었다.

요즘 중앙도서관이나 각 단과대 학생회실마다 분실사고에 대한 대자보가 나붙고 있다.

"오늘도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요"-중앙도서관

"다른 물품은 상관없고 지갑만이라도 OO로 돌려주십시요"-동국관 5층도서실. 도서관에서 만난 김영란(대학원 연영과)양은 하루걸러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라며 최근의 도난사고의 빈발을 '사태'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대책은 없는가

이 질문에 도서관 행정책임자들의 답변은 회의적이다.

지난해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 바코드 출입기 설치이후 '일시적'으로 분실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이 기계마저 잦은 고장으로 사실상 외부인출입통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기계구입부터 예산이 부족해 저가품을 설치했고 기술상의 문제로 고장이 잦다"며 도서관 행정상 분실사고 방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전에도 앞서말한 B양의 경우처럼 보관소분실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도서관 1층화장실 변기를 수리하는 중에 빈 지갑 무더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현 '분실사태'로 불리는 도서관 도난사고 방지책은 선뜻 누구도 내놓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박 수 로 〈본사기획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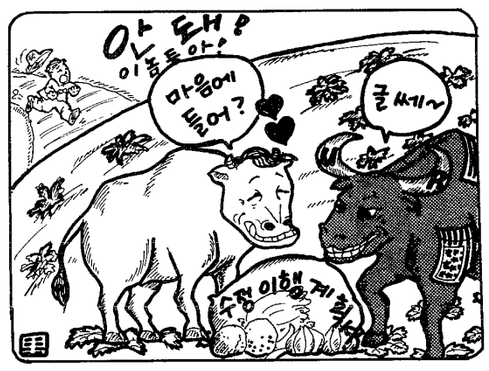
제보를 받습니다!

본사에서는 도서관 분실사고 사례나 도서관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본사로 연락해주세요!

Tel:02)260-3491~2
0561)770-2057

동국만평

김 상 남



'94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94년도 전역자
   ◇'88.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86.12.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간부
   ◇41세 이상의 간부(장교, 하사관)
3. 교육시간:8시간('94년부터 연간 8시간:1일)
4. 교육일정(대학별)

4.25(월)	4.26(화)	4.27(수)	4.28(목)	4.29(금)
경상대	이부대	공과대	공과대(화공,식공)	이과대
			법과대	농과대
사범대	문과대	(단, 화공, 식공제외)	사과대	대학원
			불교대	교직원
			예술대	

5. 교육장소: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제1905부대)
   ◇구파발전철역에서 송추방향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수송협회버스대기(06:00~07:30분까지 운행)
   ◇시내버스:구파발 전철역에서 156번(북한산성-송추)※156번중에 북한산성경유 송추행이 아닌 삼천리골행, 일영경우 송추행탑승금지
6. 복장: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7. 휴대품:신분증,주민등록증지참(분실자:학생증,면허증,동장분실확인서)
8. 유의사항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위병소 통제)
   ◇복장 미준수자 및 신분증 미휴대자 입소불가(단화및 운동화착용 절대불가)
   ◇등록지연으로 교육소집통지서 미수령자 비상계획과 즉시 신고

1994. 3.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장

동해 낙산학사 이용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본교 동해 낙산학사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이용기간:연중 항시 이용
2. 사용료
   가)내부 이용자(교직원 및 재학생)
   학생1인1박 ₩1,000(난방비:1실 ₩3,000)
   교직원 1실 1박 ₩7,000(난방비:1실 ₩2,000)
   나)외부 이용자(동문 및 외부인):내부 이용자의 2배
3. 시설규모

구분	숙소		식당	회의실	비고
	학생	교직원			
규 모	10실	14실	1	1	
난방실수	3실	7실			심야전기난방
수용능력	120-200명	70명		200명	

3. 사용 신청접수 및 문의:
   서울=관재과 후생복지계(교내:3083, 3084)
   경주=학생과(학생), 관재과(교직원)

관 리 처 장

'94 청 년 만 해 강 좌

다양한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학구적인 대학풍토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94. 1학기 청년 만해 강좌를 개설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강 좌 명		강의기간	강 사	강의장소	수 강 료	대상인원	주관부서
특별강연		4월 및 5월중 2회	추후 공고함	중강당			총학생회 학생처
외국어강좌	영어회화A	4.4(월)-5.28(금) 매주 월요일 18:00-20:00	영어영문학과 캐롤라인 듀세르 교수	A 104 강의실	25,000원	20명	외국어교육원 영문과
	영어회화B	4.4(월)-5.28(금) 매주 금요일 15:00-17:00	영어영문학과 캐롤라인 듀세르 교수	A 104 강의실	25,000원	20명	〃
	일어회화	4.4(월)-5.28(금) 매주 수요일 18:00-20:00	일어일문학과 스기사와 이즈미 교수	A 104 강의실	25,000원	20명	일문과
동양학강좌		4.4(월)-5.28(금) 매주 목요일 07:30-08:50	철학과 김항배 교수	A 101 강의실	5,000원	30명	철학과
참선강좌		4.4(월)-5.28(금) 매주 수요일 07:30-08:50	정각원장 선학과 한태식 교수	정 각 원	5,000원	30명	정각원

*대 상:전체 재학생(신청접수순으로 마감함)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3. 21(월)-4. 4(월) 학생과

상무대 부정유입자금 진상규명과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 3임 반대 움직임·종단개혁 활발

상무대 공사 자금 80억 여권의 불교계 선무자금으로 오용

석연찮은 수사태도, 김정권과 서원장의 비리의혹만 확실시

"상무대 관련 유입자금 정부는 즉각 규명하라"라는 현수막과 함께 상무대 이전공사 자금 부정유입 진상규명과 서의현 조계종총무원장 의 3임 결사반대 및 조계종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불상옆에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부터 신문지상에서 찾아 볼수 있었던 상무대 이전사업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불교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본교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상무대 이전사업 비리의혹은 대체 무엇인가?

상무대 교외이전 사업계획은 제병합동교육본부 및 병과학교등 군사학교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모두 5천8백억원이 드는 대형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88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사설계와 소요터 매입 등의 과정을 거친 뒤 91년 10월 공사발주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낙찰되고 청우종합건설이 도로포장 등에 공동도급업자로 단독 지정됐다.

낙찰후 92년 10월 청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고 로비자금 13억과 LAC 공업 특허사용권을 빌려주기로 한 대로건설의 이동영 사장이 서울지검에 청우건설

◇상무대 이전 공사 자금중 80억원이 서의현 총무원장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기현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처리 되었다. 기각되자 이동영 사장은 93년 3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진정서를 접수, 12월28일 신임 이병태 국방장관의 율곡사업, 상무대 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

조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1월초이다. 조씨가 유용한 공사대금이 정치권이나 역대 군고위층에 유입됐는지를 가리기 위해 자금추적등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1월 28일 조씨를 기소하면서 국방부의 발표만을 되풀이 했다.

소위말하는 상무대 사건이 가시화 된것은 지난 2월25일 정대철(민주당) 의원의 상무대사업비의 민자당 대선자금 유용의혹과 동화사시주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부터이다.

정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조씨가 밝힌 유용액의 사용처는 총 2백27억원중 80억원이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시주금을 위장한 여권의 불교계 선무자금으로 여당의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정치자금이 40억, 조씨개인의 착복 10억, 기타 45억등 1백75억원을 조씨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무대 이전사업 비리의혹은 이것으로 일단락지어 졌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이것이 아니다. 비리의혹은 단지 의혹에 불과할 뿐 진상규명이 되지않았기 때문이다.

각계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상무대 시공비자금 유입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막바지에 몰리자 단지 불교계의 비리로만 해석하려 들고있다.

이러한 석연찮은 태도는 더한 의구심만을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명백한 진상규명만이 실추된 불교위상을 되살리고 김영삼 정부가 부르짖던 개혁의 바람을 몰고가는 실질적 대안이 아닐까.

(양수정 기자)

◇불교대 학생회장 최정헌군을 만나

종단 개혁이 투쟁 궁극 목표

"총학과의 연계 필요성 느껴"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의 3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86.6%의 반대, 6.7%의 찬성으로 서원장의 지난 8년 재임기간이 평가된 가운데 재임기간을 5달 남긴채 오늘(30일) 총무원장 선거를 하려하자 불교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본교 불교대 학생회에서는 '상무대 비리 진상규명 및 종단개혁을 위한 불교대 비상회의(의장= 최정헌·인철4)'를 구성하고 서원장 3임 반대의 의지를 펴고 있다.

이에 불교대 학생회장 최정헌군을 만나 불교대의 입장을 들어본다.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저지를 위한 불교대의 움직임은.

=지난 18일 재가불자연합을 결성했고 25일부터는 서원장 3임을 저지하기 위한 조석예불을 드리고 있으며 어제(27일)부터 경주캠 불교문화대 학우들과 총무원 집행부의 청사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 불교대 내에서는 '상무대비리 진상규명 및 종단개혁을 위한 불교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불교대의 투쟁방향은.

=서원장은 상무대 비리로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린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 3임을 포기해야 한다. 총무원장이 각종 직책을 겸임하는등 종권독점으로 인해 파행적인 행정이 계속돼 왔다. 우리의 궁극적인 투쟁방향은 종단개혁이다.

-총무원장의 품성, 자격등의 인물적 요건은.

=우선 종단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덕망이 있어야 한다. 서원장은 총무원을 2개로 나누고 종권의 다툼과 정권에의 예속을 조장했던 인물이다.

-파행적인 종단운영의 원인은.

=종헌종법의 불합리성과 종단개혁의 의지 부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종단의 운영이 일부 기득권 승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종단개혁의 투쟁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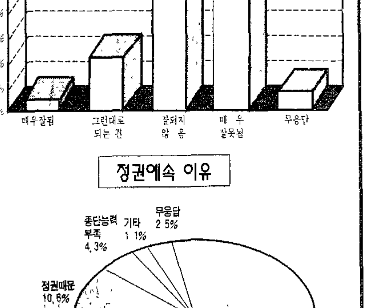
=불교대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낼 수 있도록 하며 학자적인 관점에서 투쟁할 것이다. 불교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총학생회와의 연계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불교개혁의 의지를 담아 학우들에게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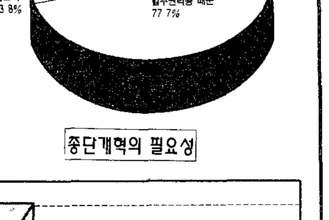
=불교계의 위상을 하락시키고도 총무원장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서원장의 3임을 저지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이다. 종단운영의 파행성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자주적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다.

(이유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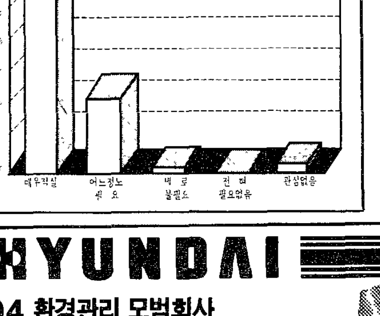
종단 운영 평가



정권예속 이유



종단개혁의 필요성



승가회 여론조사 결과 종단개혁 필요성 절감케 해

3월 종회때 총무원장 선출, 퇴진 압력 방패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교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여론조사

실천불교 전국승가회(회장= 청화)는 조계종 산하 전국 1천68개 사찰과 선원, 승가대학, 불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종단개혁을 위한 대중불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중 86.6%가 현 서의현 총무원장의 3임을 반대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5%가 종단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서의현 총무원장의 3임반대 이유로는 △정권독재의 연장우려- 36.7% △종단분규의 재현 우려- 21.9% 등으로 나타났으며 제27대 신임 총무원장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종단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43.5%, 종단화합을 선택한 응답자는 38.7%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불교도들이 바라는 총무원장의 자격요건으로는 덕망(도덕성), 종단개혁의지, 수행력 등이 주요 요건으로 제시돼 총무원장은 승려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요건을 구비한 승려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종단비리 개혁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95%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종단개혁에 대한 이같은 강한 요구는 현 종단 운영의 잘못으로 부터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도 특이할만 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종단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다'나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전체의 12.5%에 불과한 반면 '매우 잘못되고 있다' 또는 '잘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7.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단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종헌종법의 불합리- 7.2% △대중스님의 의지부족- 5.6% 보다는 △종단운영이 일부 기득권 승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 84.9% 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조기 총무원장 선출의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박종하)는 지난 16일 총무원장 선거를 오늘(30일) 있을 임시 중앙종회에서 치를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의현 총무원장이 예상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총무원장 선출을 서두르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기만료 몇개월 전에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여름 정기종회에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가을에 취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음에 비춰볼때 3월 임시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전격적 조치는 여러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종회나 총무원 어느쪽에서도 이에대한 공식적 견해는 없지만 제도권 안팎에서는 상무대사업 문제가 총무원장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 이에대한 돌파책으로 조기 총무원장 선출이 제기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상무대 사업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위가 확산돼 가면서 총무원장 퇴진 움직임이 일자 법적 신임을 얻어 이를 잠재워 보자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 조기 선출안이라는 것이 재야 스님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종회는 이미 서원장의 3임을 위한 준비를 마친상태에서 더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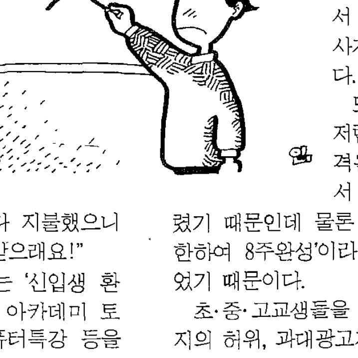
정치작업을 마친 종회를 통한 재신임과 이를 통한 퇴진 압력의 방패가 바로 총무원장 조기선출이라는 분석이다.

(이석종 기자)

동악로

관행적 특강

경주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서경보·법4) 사무실에는 컴퓨터특강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이 뭐 이래요? 한마디로 수준미달이예요. 학복위측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벌써 강사료로 다 지불했으니까 강사한테 직접 가서 받으래요!"

제9대 학생복지위원회는 '신입생 환영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 토플, 영어독해력특강, 컴퓨터특강 등을 준비하고 지난달 2월24일부터 접수를 받아왔다.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토플이나 영어회화, 컴퓨터등은 3, 4학년들에게 더욱 구미를 당기게 만든다.

특히 컴퓨터특강은 기초과정, 정보처리 1급, 정보처리 2급반으로 나뉘어 실시돼 기초과정을 제외하고는 재학생들의 신청률이 더욱 높았다.

"컴퓨터특강이 학생들 호응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부담없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학복위측은 자찬을 한다.

작년까지 컴퓨터특강의 경우, 학원하나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강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올해는 경주지역컴퓨터 연합회에서 추천된 몇명의 강사가 강의를 맡게 됐다.

또 학복위측에서 저렴하다고 하는 가격은 지난해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내렸기 때문인데 물론 이는 '중요부분에 한하여 8주완성'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습지의 허위, 과대광고가 늘상 문제로 지적되더니 이제 '상아탑'이라고 불리어지는 대학내 특강조차도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특강이 일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자 정보처리 1,2급반 수강생들은 강사의 수준미달과 실습부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학복위는 서둘러 환불액을 지급했다.

매년 학복위측에 의해 관행적으로 준비되는 특강으로 학우들의 피해는 크다.

이제는 안일한 사업이행에서 벗어나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윤전화 기자)

◇불교문화연구원을 통해 바라본 본교부속연구소의 현위치

예산·인력부족…교수 개인연구에 의존

'동국발전'의 한 과제로 대책마련해야

국내 유일의 대학 부설 불교문화연구기관으로서 불교연구활동의 산실인 본교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서윤길·불교학)이 영문판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ddhism in Korea)'간행에 이어 '한국불교사상 개관'을 영문판으로 간행키로 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불교의 연구 및 불교와 관계 있는 동양문화의 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독창적 발전에 참여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1962년도에 설립된 불교문화연구원은 해마다 연구발표회의 (학술세미나)개최, 국내외 여러 학회와의 연락 제휴 및 공동연구, 학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학술관련 번역사업 등의 연구활동을 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불교문화연구원이 펼친 작년도 사업을 살펴보면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뇌사인정, 그 불교적 조명'개최와 '불교학보 제30집',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와 불교', '한국불교사상사 개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등 4권의 불서 간행을 꼽을 수 있다.

올해는 '한국불교사상사 개관'영문판 간행을 비롯해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간행, 한국불교전적 사전·불교문화사상사 개설 원고집필 완료, 이조실록 불교초본 번역 등의 5대사업과 불교학

◇대학연구성과를 사회화·대중화 시키는 것에서 대학부속연구소의 역할은 가히 크다. 오른쪽 사진은 작년 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한 4권의 서적.

보31집 발행,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개방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개최, 추계불교 학술대회 등 8대사업을 계획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때 불교문화연구원이 교내외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불교문화연구원이 이러한 위치에 있을때 20여개의 다른 학교부속연구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현재 본교 부속연구소는 불교문화연구원, 경영관리연구소, 농림과학연구소, 해외개발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한국문학연구소, 교육문제연구소 등 서울캠퍼스 23개의 연구소와 경주캠퍼스 4개 연구소 등 총 27개가 자리잡고 있다. 이중 반도체연구소,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이상 서울캠)와 의학연구소 (경주캠)가 작년에 새로 설립되었다.

이들 연구소는 모두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관련 서적 출판이나 학술회의 개최 등으로 대학의 간판 이미지 역할뿐 아니라 그 학교 학문의 집결지로서 학과 정기커리큘럼에서 다룰 수 없는 연구활동을 통해 학과연구의 보조·선도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런 연구소 설립취지에 맞게 연구활동을 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본교 부속연구소로는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세 연구소라고 생각되어 진다.

불교문화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대학 부설 불교문화연구기관으로서 각종 불교서적 간행 및 20여차례의 학술강연회와 전시회, 학술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불교정신에 바탕을 둔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의 중추적 산실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위치에 걸맞게 원장, 조교, 근로학생, 연구원 4명등 총 7명의 인원과 3천여만원의 학교지원예산으로 운영되어왔다 (올해는 4~5천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문학연구소 (소장= 김장호·국어교육)는 학국문학에 관한 자료 수집, 발행 및 연구, 창작 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1979년 설립되었다.

작년에 연구원2, 조교1명의 인원으로 본교출신 문인을 모은 '동국문학인명록'과 논문집16권 발간,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의 연구사업을 해 온 한국문학연구소는 1천3백여만원의 학교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올 여름방학동안 재학생 (희망자) 대상으로 문학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동문문인이 참가한 문학창작 워크샵을 계획중이다.

학생생활연구소 (소장= 박영길·법학)는 학생생활의 연구와 전문적인 지도를 통하여 개개인의 정서적, 교육적, 직업적 문제해결을 돕고 적응능력을 발전시켜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1970년 설립되었다.

다른 부속연구소와는 달리 법정연구소 (교육부령으로 각 대학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지어 놓은 연구소)로서 1백30여개의 4년제 대학에 설립되어져 있다. 본교 학생생활연구소는 신입생 대상으로 학생생활 실태조사 (설문조사), 심리검사 (인성·적성검사)및 상담활동과 강의지원업무 (심리테스트가 필요한 강의), 연구집 (학생생활 연구, 해외유학안내)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9백여만원의 학교예산지원과 소장, 연구원, 조교 등 3명의 인력을 보유한 학생생활연구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신청 교직원 자녀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기도 해 적지 않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졸업생 자녀에게도 신청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연구소답다'는 이들 세 학교부속연구소는 어느정도의 학교측 예산지원과 인력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지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년 연구사업이 똑같을 수 밖에 없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며 학생생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말한다.

이는 이들 세 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부속연구소들의 공통문제일 것이다. '연구활동의 예산 확보'와 '충분한 연구인력'의 문제는 유급조교 (학비면제 수준)배당이 안되고 논문집 발간 보조비 1백만원으로 모든 연구활동을 해야하는 본교 대부분의 연구소로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대학자체종합평가 연구 1차보고서'를 살펴보면 '93년도 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총액은 7천8백5십만원으로 총 26개 연구소에 대한 평균예산은 3백1십만9천원으로 나와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인정위원회에서 발표한 평가척도에 비춰봤을때 감점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당 연간평균 1천1백만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약 2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 자체 분석되어 있다.

현재 본교 부속연구소의 연구관리는 학술부 (부장= 홍영식·컴퓨터공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술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1년에 한번씩 '부설연구소 실적현황' 보고서를 각 연구소별로 작성토록해 연구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부족 등의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아서 해결해야 하고 연구소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및 실적 관리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현 학교 부속연구소 문제에 관해 말한다.

대학부설연구소가 그 대학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연구활동이 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의 문제로 독특한 연구활동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대부분의 연구소 연구활동이 각 교수가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받은 연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동국대학교 부설 연구소'자체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을뿐 아니라 교수 개인의 사설연구소로 전락되어가는 실정이다.

한국문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학교부속연구소가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박태준이 없다고 포항제철이 무너지는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지금의 학교부속연구소의 실태를 꼬집는다.

본교 부속연구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공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본교 실정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연구소 자체만의 문제로 짚어서는 찾을 수 없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국발전'을 계획할 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진다.

〈곽주영 기자〉

컴퓨터이야기

컴퓨터그래픽의 활용

3차원 환상세계 창조

광고, 영화, 건축설계등 생활에 도입

한 마리의 열대어가 순금을 입힌 봉황이 되어 하늘 높이 날거나 평원을 질주하던 코뿔소가 미려한 자동차로 변하는 것과 같은 환상의 장면을 TV등의 CF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래픽이라는 개념이 컴퓨터를 통해 다양하게 도입되고 실현되므로써 생활주변의 많은 모습들이 변하고 있다.

이제 기업의 광고에 컴퓨터그래픽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수 효과를 이용해 관객을 끌어 모으고자 하는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컴퓨터그래픽은 대단한 매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Ⅱ'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 영화 제작사에서도 '구미호'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모의 여주인공이 여우로 변신하는 장면등을 컴퓨터그래픽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물론 인식의 차이겠지만 도화지 위에 물감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컴퓨터그래픽이다. 컴퓨터그래픽은 2D (2차원), 3D (3차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려면 보통의 컴퓨팅 환경보다는 상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486PC이상 기종과 120MB이상의 하드디스크, 8MB이상의 RAM, 슈퍼VGA카드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원활하다.

2D그래픽은 그린 것을 도트 (dot)와 집합으로 취급하는 페이트계와 오브젝트라 불리우는 도형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드로우계로 나뉜다. 페인트계는 비트맵 (bitmap)으로 선이나 아취형을 묘사하기 때문에 확대할수록 하나의 좌표값을 지닌 도트가 커지게 되어 자연히 화상이 거칠어 진다. 드로우계는 선이나 문자를 각각 독립시켜 숫자적으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확대해도 페인트계와 같이 형태가 파손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프린트로 출력시 높은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

컴퓨터그래픽의 참맛은 아무래도 3D 그래픽을 제작하는 것에서 느낄 수 있다. 3D그래픽의 실제 작업은 물체의 형태를 제작하는 '모델링', 물체에 색이나 질감을 부여하는 '텍스쳐매핑', '빛의 음영을 주는 '라이팅', 물체에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건축등의 설계에 이용되는 CAD (Computer Aided Design)도 3D그래픽의 일종이다.

컴퓨터그래픽을 배우는 데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컴퓨터그래픽을 하기위한 하드웨어적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System에 맞추어 무한한 창조의 세계를 넘나 들어 보자. 매뉴얼 습득에서부터 창작의 결실을 맺기까지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해 보자.

지 동 철
〈대성교육출판 전산편집실 ·컴퓨터공학과 94졸〉

인/터/뷰 — 불교문화연구원장 서윤길 교수

자금 열악·구성원 부족 등이 실적 부진 요인

연구소 위상, 양적 성과물아닌 학술 연구 방향 제시

본교 27개의 부설연구소가 있으나 다른 학교의 연구소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적저조의 원인으로 재정문제, 연구소구성원의 문제등의 장애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학내연구소 중 지난해 많은 실적을 올린 불교문화연구원의 서윤길 (불교학)원장을 만나 학내연구소에 대한 제반 사항을 들어본다.

-지난해 불교문화연구원의 실적은.

=크게 서적발간과 학술세미나 개최로 나누어 볼수 있다. 불교관련 서적4권을 발행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영문판 간행은 민족종교인 불교를 세계화 시킬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

-실적부진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방안은.

=학내 구성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구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도 자기발전을 쉬지않아야 한다.

-학내연구소 실적부진의 원인이라면.

=우선은 사업을 해나갈 예산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이다. 그리고 연구소 구성원의 움직임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현재 학교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연구소 중에서 중심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이다. 그러나 본 연구원에서 불교학보를 발행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할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다.

-연구소가 학내에서 해야할 일이라면.

=연구소인만큼 연구성과로 교육과 사회발전, 그리고 학술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다. 양적으로 수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돼야 한다.

-학내연구소의 위상에 대해.

=학문연구는 대학교육의 생사갈림길에서 어느쪽에 설수 있느냐를 가름할수 있는 것이다. 건학이념, 곧 동국정신을 계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부응할만한 불교문화연구원의 대응방안은.

=우리 대학을 세계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를 알리기 위해 한·영 불교사전을 발행하는 것이 그에 부응하는 일이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내연구소의 나아갈 방향이라면.

=연구소를 처음 세울때의 본래 설립취지를 잊지말고 자금의 열악이나 구성원 부족등의 장애조건들을 극복하며 질적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이유리 기자〉

첨단정보통신서비스 — 천리안

"모여라, 천리안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으세요

TV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정보와 유행에 둔한것을 못참는 사람은 지금 천리안에 가입하십시오. 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으시고, 친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프트웨어가 무료라구요?

아래 리스트를 보세요.. 얼마나 유익하고 귀한 정보들이 많은지 놀라실 겁니다. 이 자료들은 천리안만 가입하시면 얼마든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 백신 V155(예방용), CLEAN, SCAN등 ●**통신S/W** : DL2, 이야기 등 ●**업무/가정용** : 명함관리, 가계부, 개인비서관리 프로그램 등 ●**사진/그림** : 그래픽 워크샵, CSHOW 2000A, 각종 사진 등 ●**학습용P/G** : TIME지, 영어단어 22000 등 ●**각종 Utility** : 회일관리, 그래픽 모드달력 P/G 등 ●**윈도우즈/NT용 S/W** : 윈도우용 게임 Utility등 ●**멀티미디어 S/W 및 자료** : 최신 가요자료, 노래방목록기 등 ●**해외자료** : 해외에서 직접 받은 최신 게임 및 Utility등 ●**초보자 추천자료** : 압축파일 Utility, 컴퓨터진단 P/G등 *총 10만종의 각종 S/W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겐 어느 동호회가 제일 어울릴까?

아래에서 찾아 보세요.. 바로 내가 찾던 취미,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의 동호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느곳이든지 가입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PC통신** : 초보자의 뜰, 하늘소와 함께, 통신사랑모임 등 ●**컴퓨터** : 소프트웨어, 사운드 카드, 바이러스, 전산이론 등 ●**취미/오락** : 게임, 사진, 바둑, 자동차 등 ●**문화** : SF, 문학, 방송인, TV-MANIA, 식도락 등 ●**예술** : 영화, 연극마당, 애니메이트, 만화창작 등 ●**친목** : 직장인, 만남, 쥐띠, ROTC, 10대 등 ●**생활/가정** : 한우리방, 주부, 잉꼬부부, 원로통신 등 ●**스포츠/레저** : 볼링, WIND-SKI, 항공스포츠, 여행 등 ●**전문/학술** : 과학그린비, 문법이론연구모임, 천문, 건축, 재테크 등 ●**지역** : 설악, 한라, 서초구 사랑모임, 섬사랑 등 ●**캠퍼스**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중고교/기타** : 경기고교, 상문/은광, 중고생, 고교생활 등

천리안 동호회 모집

기존 모임의 운영자나 새로운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천리안 신규동호회를 공개로 모집합니다.

●대상 : 학생 및 일반인
●분야 : 전분야 (발기인 10명이상)
●지원내용 : 운영자용 무료ID제공/동호회 활동 후원 등
●문의처 : 220-7245, 천리안ID : CENTER3

■전화국에서 나누어 주는 정보통신 단말기로도 천리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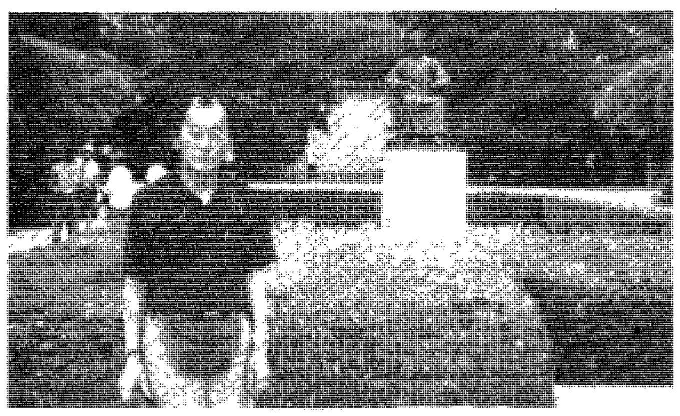
데이콤

통신 신기술개발 및 선진화를 추구해온 **데이콤**은 정보사회 선도를 위해 설립된 **순수 국민의기업**입니다.

종합안내센터 : 220-0220
080-023-0220 (데이콤 요금부담 전화)

천리안을 통해 들어온 편지를 모아 청와대 정무비서실에서 발간한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를 천리안 홈쇼핑으로 주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사 ●부산지사 220-0220 ●전남지사 510-0220 ●경북지사 753-9991~4 ●충청지사 220-0220 ●전북지사 220-0220 ●강원지사 48-0001~2 ●제주지점 56-0656 **지정점** ■**서울 경기** ●강남 553-1741 4 ●강동 479-0220 ●강북 986-0321 3 ●강서 653-6001~2 ●서대문 707-0220 ●서초 552-3340~1 ●용산 702-3041 ●중앙 232-6464 ●광명 896-3151~2 ●부천 657-1117 ●인천 435-0515 ●인천북부 517-8088 ●안산 83-3002 ●수원 252-9001~5 ●성남 702-0110 ●안양 41-1601~3 ●의정부 45-4225 ■**대구 경북** ●정구 426-0700 ●중앙 351-8000 ●안동 57-4002 ●포항 72-5500 ●구미 52-7001 ●울릉 791-6188 ■**부산 경남** ●중부 248-9300 3 ●동부 633-6100 2 ●마산 41-3840~1 ●울산 75-0077 ●충무 41-0044 ●진주 759-1818 ■**광주 전남북** ●광주 364-4200 ●여순 745-2400 ●목포 72-0110 ●전주 83-5277 ●군산 42-1009 ■**대전 충청** ●대전 257-1007~8 ●천안 555-6500 ●청주 52-9645 ■**강원** ●강릉 645-5001 5 ●춘천 54-4388 ●원주 732-3200 ■**제주** ●제주 55-7335 6


◇노신공원의 노신기념상 앞에 서 있는 필자.

세계로 가는 강의 — 중국 편

중국인 아큐정신 반영한 노신공원
참된 승리법 찾아가는 모습보여
"문학, 민족정신 되살려야 할때"

이번 김영삼 대통령은 상해에 들르면서 홍구(虹口)공원과 상해임시정부청사를 보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해에 가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홍구공원엘 들르면서 노신기념관 보는 일을 대개는 빼버리고 있다. 그렇다면 홍구공원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찾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윤봉길(尹奉吉)의사와 관련된 곳을 보기 위해서 이리라.

윤봉길은 1930년 2월 '장부출가생불환, 丈夫出家生不還'이란 글을 남기고 상해로 건너가 세탁소외무사원, 모식공장직공등의 일을 해가며 김구(金九)가 주도하던 항일애국단에 들어갔다. 그는 1932년 김구로부터 폭탄을 받아 4월29일 일본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과 겸하여 상해사변 전승기념식장인 홍구공원에 들어가 폭탄을 던져 상해파견 일본군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대장과 상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등을 즉사시켰다. 윤봉길은 거사현장에서 체포되어 오오사카로 이송,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했다.

그러나 윤의사가 거사를 편곳이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또 표적이 될만한 것도 없다. 그냥 노신의 무덤우측 뒷쪽 나무숲이 우거진 둔덕위라고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허망하기 이를데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곳을 본 허망함은 그냥 허망함으로 끝내야 하는가?

노신의 무덤과 장엄한 비석 그리고 그의 기념관을 보게 되면 그 허망함을메꾸어질수있다고여겨진다.

더구나 요즘은 그 이름도 '노신공원'으로 바꾸었고 아침저녁 공원전체가 기공의 장이 되고 있다.

개화이후 우리네 문인의 기념관은 전국을 누벼보아도 찾기힘든데 이들은 왜 전국에 몇개나 되는 노신기념관을 만들어놓고 이곳엔 공원까지 갖추게 해야 했던가?

이것이 그들 중국인의 정신이다. 아큐정신. 그 정신을 배양하는 곳 노신기념관을 찾아보자. 홍구공원 입구에서 1백여미터 전방 우측 대나무숲에 가려 있는 이집은 3층으로 되어있었다.

이곳에 들면 노신의 본명이 주수인(周樹人)이라는 것과 그가 절강성 소흥에서 태어나 남경수사학당(南京水師學堂)과 육사학당 부설 노광학당 채광과를 나와 일본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수학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06년 그날 교실에서 노일전쟁의 환등을 보고 격분, 학교를 중퇴하고 오직 문학에만 심취하게 된 것도 소상히 전시되어 있다.

그후 1909년 그는 귀국하여 고향에서 교편을 잡다 민국(民國)혁명후 동향선배 채원배의 초청으로 북경교육부에 근무하면서 많은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처녀작은 '광인일기' 이어 소설'공을기 孔乙己' '약' '명일' '일전소사' '두발고사' '풍파' '고향' '아큐정전' '지'등을 발표했다.

특히 '아큐정전, 阿Q正傳'은 세계명작이 된 그의 대표작답게 각 화가의 아큐풍자그림이 벽에 즐비하게 붙어 있었고 각국에서 발간한 책도 많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로하여 유명하게된 그는 북경대등에서 강의하였고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1925년 정부문화탄압에 위협을 느낀 그는 북경을 탈출 광동중산대학에서 강의하다 국공(國共)분열후의 불안과 사회정세를 피해 1927년부터 상해에 정착하게 된다. 상해에 정착한후 그는 중국좌익작가연맹(30)의 중심인물이 되어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론을 내세우게 된다. 그가 세상을 떠난것은 중일전쟁이 일어나기전해인1936년10월19일이다.

노신의 무덤은 홍구공원에 있고 그의 만년유품들도 거의 그곳 노신기념관에 진열되어 있었다.

기념관 1, 2, 3층을 다니다 보니까 아큐는 날품팔이 농민으로 자기 어리석음과 약점을 모르고 제 잘났다고 생각하며, 싸움에 졌을 때는 자기가 양보했다고 자랑하고 상대가 약하면 큰 소리를 치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게된다.

결국 아큐는 신해혁명의 소란속에 축제일같은 들뜬 기분이 되어 폭동에 참여했다가 일당으로 몰려 처형된다.

노신의 '아큐정전'이 유명해지자 주인공 아큐도 유명해 졌고 결국 아큐는 일반화되어 중국인의 정신하면 아큐정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남에게 경멸과 학대를 받으면서 관념속에서 자타를 뒤바꾸어 참된 승리자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정신승리법을 위한 그들이기에 홍구공원은 아예 노신공원이 되었고 그 아큐의 정신은 되살아 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쯤 문학인의 기념관이 생길까 여기며 그곳을 나섰다.

김 홍 우
(예술대 연영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학생평가의 어려움

세월은 흰구름 같이 흘러 배움을 끝내고 조교로부터 시작한 학교생활이 어느새 이순(耳順)의 문턱에 와있다. 별로 뒤돌아 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종종 뒤를 되돌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가 된 것이다.

일상적으로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논문쓰고 책내고 강의하고 그런대로 노력하면서 살아 왔다고 자부한다지만 우수한 논문이나 좋은 책 만족할만한 강의가 되지 않은채 늘 부족한 상태로 시간이 메꾸어 졌다고 생각되니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과거나 이제나 욕심이 없지 않아서 우수한 논문도 쓰고 싶고 좋은 책도 내고 싶고 그리고 더 만족한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변함이 없지만 능력도 능력이려니와 게을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더욱 마음 아파하는 때가 있다.

교수로서 할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좋은 논문쓰는 일이겠지만 그에 앞서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가르친 학생을 평가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매학기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의 성적을 내기 위하여 출석통계도 내고 과제물도 체크하고 중간과 기말시험 답안지를 채점해서 성적을 내는 평가가 따른다.

교수로서 학생 개개인에 능력이나 노력한 사실을 알사이도 없이 강의가 진행되고 한 학기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출석율은 극히 특수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으며 과제물도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글씨와 성의정도만이 다를 뿐이고 전부 같다. 중간과 기말시험 점수가 비슷하면 그런대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경우 두 점수간에 차가 크게 있어 그것을 평균해서 성적을 내는 것은 위험한 평가가 된다는 추론이 통계적 사고이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을 내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평가된 학생의 성적은 학생개인의 중요한 지표로 붙어 다닌다. 성적이 잘못 평가된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학생 개인의 지적특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잘못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각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개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정도 각양 각색으로 다른 상태에서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출석 때우기 위해 뒷 좌석에 앉아 기회만 보는 학생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학점을 달라고 조르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가의 문제와 성적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일이 교수의 임무중 하나인것만은 틀림 없지만 학생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전혀 없고 성적평가를 위한 기본자료가 정확하지도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의 과제로 안고 있다.

우리는 강의실이 경직되지 않은 매우 자연스런 분위기로 바뀌어 교수나 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믿음이 있어 서로간에 얻는 것이 만족될 때가 와야 우리의 어려움이 해소 될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빨리 달라져서 강의실과 연구실이 질적변화가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뿐이다.

김 종 호 이과대 통계학과 교수

◇광고의 윤리와 규제

진실성 추구, 광고윤리 제일 기조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약 아쉬워
소비자 수준이 사후심의 정착요건

텔레비젼인 경우 모는 광고물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허위, 기만 저속등 좋지 못한 광고로부터 일단은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심의관련 규정중 직접적으로 광고와 관련되는 것만도 39개조항에 약 2백개 항목에 이르고 있어 광고업계 특히 광고물제작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기도 하다.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당의 행사나 정치광고, 유흥접객업(식품위생법), 사적비밀조사업, 혼인매개피임기구 무기, 도박 담배 술(알콜성분 17도이상) 선정적인 간행물이나 영화·비디오등의 광고는 아예 금지되어 있으며 의약품, 화장품, 부동산 학원, 수입상품등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그심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재와 관련하여서는 허위, 기만, 오도선정성 언어 그리고 어린이 모델등이 주요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놓고 볼때 어느것이 우선하느냐의 판단이 광고심의 내지 광고윤리의 방향과 심도를 가름하게 되지만 '표현의 자유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할수는 없다'는 것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처럼 되어 있음에 비추어 특히 광고의 진실성문제는 광고윤리의 제일의 기조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다만 선진외국을 비롯한 대다수국가에서는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시비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20일에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가 현탄식을 갖고 정식발족한 터이므로 언제부터 사전심의를 풀수있느냐를 놓고 논의할 게제가 머지 않아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일반의 사명의식수준이나 마아케팅사고수준 그리고 광고환경(특히 소비자수준)과 기법수준등으로 미루어 사후·자율심의의 관행은 좀 처럼 정착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감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광고업계가 바라는 바 자율 사후심의의 제도화를 하루라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진실성추구를 위하여 보다 솔선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심의분위기로 보아 의약품, 식품, 가전제품을 비롯한 정량적 정성적 혹은 기술적표준이 운위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경우 확실하거나 믿을 만한 입증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폭이 정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분위기는 어떤 개인이 주도하고자 하여 될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 결함에 의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의 재산적 및 비재산적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얼핏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것을 명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근저가 되는 것은 결함상품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제조자는 과실(過失)의 유무를 불문하고 총합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지게된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깔고 있는 것이다.

UR등 국제화방향에서의 환경변화를 전제할 때 예감되는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구조적변화에 적응하면서 제조물 책임예방의 문제를 광고적인 입장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조는 역시 광고의 진실성추구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매일의 광고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광고관계자 공통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고규제나 광고윤리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아케팅정보나 소비자정보와 같이 환경변화정보나 광고법규정보로서 자리잡아 일상업무속에서 가볍게 다룰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 다음이라면 거리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미니스커트가 선정성으로 잘리고, '틍통튄다'는 표현이 부적당한 광고용어로 삭제되며 어린이의 손만나와도 어린이광고로 가위질 당하는 따위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도 쉬웁게 풀릴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황 창 규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기획조정실장)

총여 정부회장에 김령은·이재숙조 입후보
오는 31일 투표…유권자 관심이 관건

제9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김령은(사회4), 이재숙(역교4)조가 단독 출마했다.

선거관리 위원회(회장=한장섭·독문4)는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지난 28일 1차유세를 가졌으며 오늘(30일) 2차유세, 31일과 4월1일 투표를 거쳐 같은날 오후7시에 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투표는 법대, 사과대, 경상대, 농과대가 1지역. 불대, 문과대, 이과대, 예술대가 2지역 사범대, 공대가 3지역 야간강좌가 4지역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진행되며 예년과 달리 야간강좌는 다른 지역보다 하루가 빠른 31일 오후 10시에 투표를 종료한다.

또한 후보자는 기호를 쓰지않고 이름만을 사용하며 처음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 되고 공개 개표를 실시하는등 종전과는 많이 달라진 선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한장섭 선관위 위원장은 "과거 학생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던 파행적인 선거의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의 의의에 대해 "보통 4년주기로 움직이는 학생회 사업에서 이번에도 후보자가 없었다면 총여학생회가 회칙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볼때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 출마한 김령은·이재숙조는 '늑슨 정신 정체된 타성에서 벗어나 이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공약으로 △2천4백 여학우들의 구심체로 우뚝 설것 △동악내 성평등을 매개로 해서 꾸려진 소모임의 지지, 지원, 강화 △여학우들의 복지 문제의 적극적 해결 △건강한 대학 문화·창조적 대학문화 선도 등을 내세웠다.

1차유세

지난 28일 오후1시 도서관 앞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김령은 정후보자는 유세연설을 통해 "비교적 성차별이 적은 대학사회에 있어도 결국은 여성이라는 벽에 부딪힐수 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부활하는 제9대 총여학생회'를 외치며 단독출마한 김령은·이재숙조의 1차 유세가 지난28일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학복위 임시위원장 인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위원장 권한 대행에 강희순(불교4)군이 학복위 증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통해 인준되어 지난 25일 임시위원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복지주체등이 모인가운데 비상 학복위 중운위를 학복위실에서 가졌다.

이번 중운위 안건으로는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이하 공관위) 위원장 추천 결과 보고, 공관위 운영규정 학대표회의 인준건, 10대 학복위 사업계획서인준, 각 단위 복지요구안 심의 등이었다.

공관위 위원장에 배형(경제학)교수가 추천되었고 공관위 운영규정안 인준은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과 함께 학대표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타 단위 복지 요구안은 각과학생회실까지 전화기 혹은 인터폰 설치, 난방 시설 확충 등으로 학교측에 공사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석림회 교정 청소

석림회(회장=법상·선4)는 매주 수요일 '동국사랑의 날'로 정하고 오전 8시부터 30분간 교정 청소를 실시한다.

동국인 등산대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4월 16일 북한산에서 열린다.

4.19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19를 전후하여 치뤄져 올해도 25회를 맞는 동국인 등산대회는 재학생, 동문, 직원을 막론하고 전 동국인이 참여할수 있다.

참석자는 오전 9시까지 북한산 4.19기념탑에 집결하여 4.19기념행사를 마친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며 대동문, 북한산장을 거쳐 북한산성 유원지에서 해산하게 된다.

특히 환경보호 캠페인도 함께 벌여나가게 될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학생과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1부와 참가비 5천원을 4월15일까지 학생과로 납부하면 된다.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김령은·이재숙양을 만나
"여성문제 직접참여 함께 해결하길"

제 9대 총여학생회장 선거가 3년만에 치뤄지게 되었다. 그동안 후보자가 없어 회칙상에만 존재했던 총여학생회는 지난 23일까지의 후보자 마감에서 김령은(사회 4)·이재숙(역교 4)조의 단독출마로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전부터 사회나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은 높은 편이었죠.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서 진로문제와 그 외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여성으로써의 한계를 직접 겪으며 여성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저 혼자만의 고민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고민으로 저의 부차적인 고민에서 제 중심으로 나오며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총여가 꾸려지지 못한점에 대해 여학생들의 인식부족에서 왔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성문제에 대한 여학우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학우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장이 부족했던 것이죠.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여성주체 모임이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체를 길러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만 없었을 뿐이었죠.

단적으로 총여선거가 다시 진행된 것만 봐도 여성문제에 대한 여학우들의 인식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여가 출범했을 때 그간의 공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단위의 여성주체 모임이 활발하지 못했고 이런 기초 단위 여성모임을 꾸려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총여가 부활한다해도 중앙만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 사회에서 보이는 성차별의 모습에 대한 견해는

=대학은 사회의 실험극이라고들 합니다.

대학사회가 비교적 성차별이 적다고해도 대학을 나와 사회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벽은 높기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성차별이 결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 일금에 따라 노동가치가 주어지는 현 사회구조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비춰지기 쉬운 가사노동속에, 남성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져야한다는 부담속에서 서로 정신적이고 신체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역할분담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여성해방 운동이 가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성 문제를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뛰어넘어 이러한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여성의 문제에 고민하기 전에 남성의 문제를 되돌아 보고 오히려 남성 해방을 외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성의 삶에 대한 고민이 곧 여성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기 때문이죠.

야간강좌 교육환경 개선요구
신설과 학회실설치 시급

제10대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곽유찬·염문3 이하 야총)는 '야간강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작성해 학생처장 앞으로 두차례 공문서를 띄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간강좌 자주화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제출된 1차공문서는 신설학과 학생회실마련, 우수교원확보, 교과과정 전면공개, 야간강좌전용PC실 마련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작성됐으며 지난 23일 제출된 2차 공문서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장치 마련, 복지요구안, 신설학과 공간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지난 28일 야총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과 학생과 과장, 직원, 이부대교학과 주임이 참석한 1차협상 자리에서 학생·학장 월례간담회, 4학년 취업대책 마련 등에 어느정도 협의가 이뤄져 이번주 안으로 문건화 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간강좌 부총학생회장 강승성(경영2)군은 "협의 내용을 학생처가 아닌 관리처, 교무처등 모든 학교측에서 이후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2차협상을 준비하면서 학교측에 전반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다. 또한 학교측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어떠한 실천도 불사하겠다."며 학교측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 쌀수입 저지 집회가져
한총련 백만학도 총투표

'쌀수입 개방 결사 반대 청년동악결의대회'가 제26대 총학생회(회장=박현식·전기4) 정치사업국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2시 도서관 앞에서 있었다.

2백여명의 학생이 집결한 이번 집회에서는 쌀수입 개방 반대 및 정부에 UR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며 대한극장 앞에서 실천행사를 가졌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4월12일 오로코의정서 채택과 UR국회준비동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전국 백만학도 총투표'를 어제(29일)와 오늘(30일)양일간에 걸쳐 본교를 비롯한 전국 1백30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이번 총투표는 각 대학별로 쌀수입개방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늘 오후 6시 마감하여 투표결과는 다음달 3일 부산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제2기 대의원대회에서 발표된다.

한총련은 오는 4월 8·9일 양일간 쌀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동맹휴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강정정율 55.6%로 집계
초급불어등 10강좌 추가 폐강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94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율을 55.6%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학기 수강정정률 52.89%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단과대별로 정정률을 살펴보면 △불교대=49.39% △문과대=62.09% △이과대=42.94% △법과대=65.65% △사과대=61.66% △경상대=54.39% △농과대=51.23% △공과대=42.57% △사범대=54.85% △예술대=69.67% △야간강좌=74.81%로 나타났다.

한편 수강정정률이 가장 높은과는 야간강좌 영문과로 83.04%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강의 계획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수강신청시 학생들이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신청 미필자는 1백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2학점미만 21학점초과 수강신청자도 3백8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무과는 이들의 명단을 각 단과대 교학과에 전 달, 이번주까지 본인에게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강신청정정기간을 거쳐 추가 폐강된 강좌는 △초급불어=박귀애 △영서강독=박상규 △회계정보 시스템=한진수 △과학사=문병렬 △교육방법및 교육공학=이은경 △농촌지도 교육론=유덕기 △공업교육론=이종성 △소비자교육론=제미경 △생활수공예=이춘계 △리듬체조=최영철등 총 10강좌이다.

재남 장학금 수여
매년 1백50만원씩

지난 11일 김정매(영문학)교수가 주관하고 황훈성(영문학)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남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87년 본교를 퇴임한 이후 후학양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한 김재남(영문학)교수는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번역해 교내 영문학 발전에 힘을 쏟은바 있다.

이번 장학금의 수혜자는 서울캠 조충권(영문4)군, 정진선(야간영문4)군, 경주캠 김은하(영문3)양등 3명이며 각각 50만원씩 전달됐다.

외·전·무·대

지켜야할것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17일 도서관장명의의 도서관내 게시물부착 일체금지령이 순식간에 공염불이 됐다는데,

이유인즉슨 용역아주머니들의 눈물나는 미화작업의 성과로 하얀벽면을 되찾은 도서관이 요근래 나붙은 총학생회 해오름식 포스터로 다시 도배질당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지킬것을 지켜나간다는 총학생회가 정작 집안잔치를 앞두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저버려서야 될는지요?"

제자된도리

○…지난주 목요일 원효관 중합강의실에서는 우뢰와 같은 함성에 온방골이 떠들썩했다는데.

개강후 몇주가 흘렀음에도 수업시간에 교수님 얼굴조차 뵐수 없어 의혹에 젖어있던 학생들이 교수님을 첫대면하자 그제서야 '다음부터는 기다리다 지치면 집에 가라'고 외쳐 제자들에게 존경받는(?)교수님으로 칭송이 자자하다고.

이 웃지못할 사건을 지켜보던 한 학우 왈 "교수님! 그래도 제자된 도리로 수업시작후 20분은 기다려야겠지요?"

늙은애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데….

요즘 온방골 총학생회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쌀및 기초농산물에 관한 대책의 방향성과 학생회비 예산편성논의가 한창.

그러나 각 기구 대표자들의 산만한(?) 논의수준이 중·고교 시절 C·A시간을 연상케해 무게 중심없는 학생회 사업을 바라보는 학우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고.

애는 애다워야지 고령의 학번이 부끄럽지는 아니한가요.

새내기책상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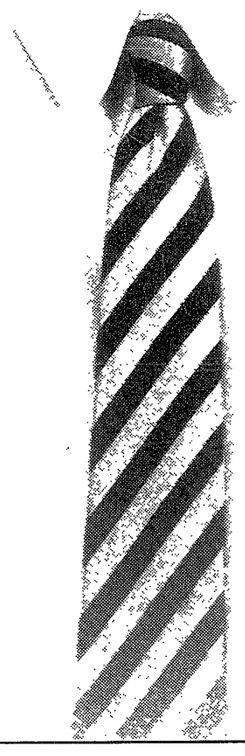
○…혹시 남는 책상 하나 없수?

새 식구들을 맞이한 각 기구 및 동아리들은 새내기들을 위해 자리마련에 고심 중이라는데.

그러나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는 멀쩡한 책상에 대못을 박아놓고, 얼룩덜룩하게 페인트로 어지러진 책상들이 늘려있어 애타게(?) 찾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든다고.

이에 한 학우 왈 "누구는 앉을 책상도 없는데 누구는 플래카드도 책상에 걸어놓고 쓰네요!"

출근과 동시에 넥타이를 풀어라!



고정관념의 옷을 벗고 자유로운 사고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 「현대자동차」

2000년대 미래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회의./
바퀴없는 차, 키트같은 무인차, 날으는 차를
개발하자는 등 별별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시절 합리주의자로 자부하던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말도 안돼./ 실현가능성이 없잖아?"
이런 말들은 나의 고정관념이었음을./
그리고, 이처럼 넥타이를 풀듯
자유로운 발상의 소유자들이 바로
엘란트라, 쏘나타 등을 개발한 주역이었음을./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치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영화의 패러독스 박광수 감독 '그섬에 가고싶다'

빨갱이 동조영화로 몰릴 구석많아
"낯설은 시각에 잠시 혼란일 뿐"
역사 바로 이을 과거청산 기준제시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나도 남아있는 인간의 한을 호소한 영화이지만 걸작이 되기엔 취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냉전시대를 거쳐 이제는 화해 분위기와 국제교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이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서로가 피하는 것이지만,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또 다른 인간적 갈등마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광수 감독이 제작하고 연출한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그린 영화가 아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났어도 인간의 한은 응어리져 남는다. 이 영화는 바로 그 한맺힌 인간들의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호소한다.

6.25를 체험한 세대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반공주의자의 입에서 이 영화는 서슴없이 "빨갱이 동조영화"로 몰릴만한 구석도 많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인민군 복장을 한 국방군이 주민들을 농락하는 장면처리에서 감독이 분명 국방군을 처참하게 모욕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은 곧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평가 방식인 것이다. 이 영화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면, 그건 좌익도, 우익도 아닌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계급적 차별을 없애자는 그런 의식일 뿐이다.

이 영화는 지금 시점에서 하나의 고정된 좌익의 논리를 대중에게 주입시키고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성의 영화는 아닌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일방통행식의 반공영화만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다소 낯설은 이런 영화에 잠시 혼란을 일으킬 따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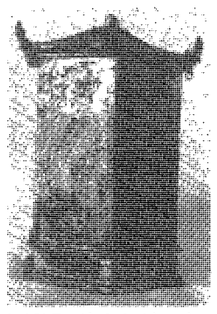
이 영화는 완성도에 있어서 결작의 반열에는 끼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점도 많이 갖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인민군이 국방군으로 바뀌는 장면은 무리한 연출이었다는 지적을 누구에게나 받는다. 과거와 현재로 오가며 1인2역을 하는 부분도 혼란감을 준다.

하지만 이 영화는 민족의 분단이 과연 외세에 의한 것이었느냐에 강한 회의를 갖게 한다. 그건 오히려 우리 민족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된 적나라한 우리 모습이라고 제시한다. 숨길수 없는 추악한 우리의 몰골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며, 과거를 어디까지 청산해야만 현재와 미래가 온전하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부여해준다.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동국 gallery

④ 금강육각사리함 —국보 제208호



이 사리함은 신라에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경북 선산 도리사(桃李寺)의 한 부도(浮屠)에서 출토된 것이다. 원래는 석적사지(石積寺址)라는 절터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世尊舍利塔'이라고 새겨진 조선시대의 사리탑 안에 안장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손상이 거의 없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한 도금색도 찬란한 이 사리함은 형태가 기단(基壇), 탑신(塔身), 옥개(屋蓋)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사리함 자체가 부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단부 각 면에서 안상(眼象)을 뚫어 장식하고, 6각을 이루는 탑신의 각 면에는 각기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사천왕상(四天王像)이 1구씩 선각되어 있어 주목된다. 각기 불자(佛子)와 금강저(金剛杵)를 지닌 보살형으로 풍만한 얼굴과 유연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유려하게 흐르는 천의(天衣)가 신체를 감싸고 있다. 또한 갑옷을 입고 각기 칼, 삼지창, 보탑 등을 지물(持物)로 들고있는 사천왕상의 당당하고 동감에 찬 포즈와 갑옷의 치밀한 묘사, 세련된 각선 등은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육개에 각각 귀꽃과 고리가 달려 있고 정상에는 연꽃으로 장엄하고 있다.

이 사리함은 6각 부도형이라는 희귀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신라말에 크게 유행하던 석조 부도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통일신라 조각 양식연구에도 참고가 되는 귀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박 도 화
〈본교 박물관 연구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 중원문화권

영토 확장 충돌지로 삼국문화 교차
가람형태·돌소재 소박한 미륵불 많아

이번 춘계답사의 지역을 중원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는데, 우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답사지에 나타난 실제 답사지역은 중원문화권만이 아닌 북부 경상북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도 중요한 문화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살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이번 답사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원문화권이라고 하면 충북일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좁은 의미로는 충주를 중심한 지역을 말하기도 한다.

이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상충하여 영토확장을 꾀하던 지역으로 삼국의 문화적 요소가 오늘에 서로 교차되며 전하고 있어 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중원 고구려비와 중원 탑평리 7층 석탑등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들 유적을 탐방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들 문화유산이 지닌 양식적 특징이나 역사적 의의등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놓여진 남북통일의 염원을 간절하게 떠 올리게 됨은 왠일일까? 그것은 모르기는 하여도 사회와 문화적 차이를 지닌 국가집단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적 접근을 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른 한편 충북지방에서는 미륵불신앙과 많이 관계된 대표적 유적들이 많다는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중원 미륵리사지·괴산 미륵리 석불입상·법주사의 금동미륵대불 등이 그와 같은 것이다. 법주사의 금동미륵대불은 최근에 재조성되어진 것이지만 법주사가 신라이래로 미륵도량적 성격을 지녀 왔다는 사실은 삼국유사에 의하여 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주사에는 계속 미륵불의 조성이 있어 왔던 것이라 믿어진다. 그러면 이들 미륵불을 접하게 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울수 있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고적답사에서 유물을 접하게 되면 그 양식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 한다. 틀린 이해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미륵불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 지역에는 미륵불의 유적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그와같은 미륵불은 역사적으로 어떤 기능을 지녀 왔던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던 것일까.

미륵불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지식은 말법세에 말법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미래불이란 사실과 또한 미륵불은 돌로 많이 조성되고 때로는 정연한 가람형태를 지닌 사찰에만 봉안되는 것이 아니라 들판이나 산언저리의 아무데서나 접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뿐 아니라 이들 석불은 우수한 미술적 양식을 지닌 것도 있지만 일반 민중형의 소박한 석불에서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됨은 어떤 일일까.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미륵불신앙을 민중불교의 형태로 인식하고 미륵신앙을 통한 민중불교운동이 전개되어지고도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미륵불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와 해석이 있지만 이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미륵불은 희망불이란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미륵불에 대한 구구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미륵불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부처님이란 사실을 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면, 충주지방의 답사에서는 상호 다른 사회의 통일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옛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적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법주사등의 미륵불 앞에서는 오늘의 사회적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 지라도 결국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경북지방에서의 중요 답사의 대상은 영주 부석사의 불교유적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었다고 하는 소수서원을 살필 수 있었고, 조선시대 양반계층의 생활양식을 오늘에 보존하고 있는 하회마을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었지만 일정관계로 하회마을을 들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영주의 부석사의 고려말기에 이룩된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벽화 등 국보급문화재가 가장 많이 전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고려문화의 우수성에 압도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잃게 된다. 그것은 한시대의 문호를 이끌어 가는 주된 힘이 무엇이었던가에 따라 그 문화의 양식이나 의미, 예술적 학술적 가치 등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소수서원, 도산서원등의 유교적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춘계답사는 지역적으로도 의미있는 지역이 선정되었고 유적지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 시기별 유적지를 고루 답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불교문화재 유교문화재 등을 그 시대적 상황을 상상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데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고적답사의 바른 뜻은 유적 유물이 지닌 양식적 특징만을 이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 유적에 대한 지정학적 배경 사회적 배경 사상적 배경 등 까지 아울러 이해하는 종합적 사고양식을 길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그리고 이번 답사에서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비록 춘계답사라고 하지만 함박눈이 펄펄 날리는 눈속의 유적을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의 성실한 모습, 그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보람으로 남아 전할 것이다.

홍 윤 식
〈사범대 역교과 교수〉

메아리

지상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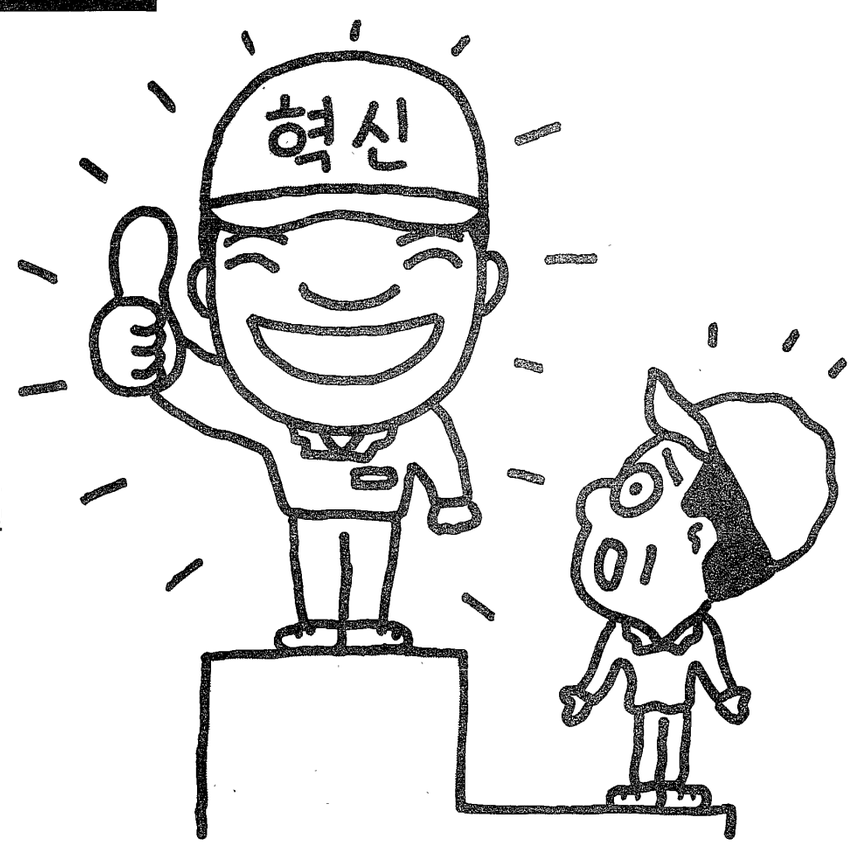
▲'언론의 효시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란 이야기를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효시를 잡아보자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적어도 정보의 전달이란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했던 신라시대의 정보전달 매개물은 다름아닌 옛 서라벌 저자거리를 굴러다니던 넓적한 돌멩이다.

성골·진골로 나뉜 신라 상층계급은 그 폐해를 말미암아 신라멸망을 앞당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은 신라 말기 부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신라 민중들은 시장거리에 널려있는 돌위에 낙서하듯이 왕실의 비리나 이웃 나라의 소식을 적어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 시장 한복판의 정자나무 그늘 아래서 성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요사이 신라시대의 정보통 서라벌 저자거리의 돌멩이가 웃을일이 경주에서 일어났다. 국내 최고의 신문임을 자처하는 ㄷ일보주최 국제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경쟁지인 ㅈ일보와 벌이고 있는 '지상혈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 신기록이 나오기도 한 이번대회의 구간거리 측정의 정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양 일간지 스포츠란의 전면에 걸쳐 근 일주일간 '정당함'과 '의혹'으로 갈라져 끝도 없을것 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ㄷ일보나 ㅈ일보는 가깝게는 전교조 탄압의 명분을 멀게는 5·10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선전한바 있다. 이에 반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산업재해와 미군의 대민 피해실상에 대해서는 한번도 깊게 다뤄본적도 다룰려 하지도 않는것같다. 그래서 이번 국제 마라톤 대회를 둘러싼 양 일간지의 논쟁이 씁쓸할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 사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은 아니다. 단지 넓은 지면을 차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양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ㄷ일보에 대항하고 있는 ㅈ일보 역시 조만간 마라톤대회를 연다. 이번 ㄷ일보 주최 마라톤 대회에 선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과 경주시가 협찬, 내지는 후원하고 있다. ㅈ일보의 대회도 마찬가지다. 양 일간지가 대회를 한다기 보다는 협찬사가 대회를 치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논쟁이 길어질수 밖에 없다. 정권 내지는 자본과 결탁할수 밖에 없는 언론. ㄷ일보의 마라톤 대회 논쟁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在)

최 경 인
(42)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안 변하면 망한다!

창업 이래 40여 성상(星霜)을 걸어 온 럭키금성이 비전 실현을 통한 혁신으로 21세기 초우량기업이 되겠습니다.

"안 변하면 망한다"

스티븐 호킹의 교훈

루 게릭병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채 컴퓨터가 달린 휠체어에 온몸을 의지하면서도 과학자로서의 끊임없는 탐구정신을 불태우는 스티븐 호킹의 저서 『시간의 역사』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지름이 무려 10만 광년(1광년은 초속 30만km의 빛이 1년동안 달린 거리)인 은하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은하라는 것도 근대식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주는 10억 년마다 5내지 10%씩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먼 천체의 경우라면 그 빛이 약 80억 년 전에 떠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그 과거의 모습일 뿐이다.」 어쨌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미했던 89개 성좌도 이미 79억 년 전에 우주 변화의 부침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르며, 또한 우리는 79억 년 364일 전에 새로이 탄생한 어떤 별빛을 내일 밤 처음으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벗겨도 벗겨도 신비로움만 더해 가는 시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기업혁신의 필요성

1952년 세계 100대 기업 리스트에 올라 있던 70여개의 기업이 23년 뒤인 '75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기업 수명 30년'이라고 한다. 톰 피터스는 『경영혁명』에서 "규모 1억 달러 미만의 시장 투자자본 이익률은 27%임에 견주어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에서는 평균 11%에 그쳤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는 한마디로 이른바 대기업병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새로운 대응', 곧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혁신만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보편화되다시피한 일본 기업의 혁신운동은, 그 걸어 온 길을 살펴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지금은 기업혁신운동의 일대 전환기

70년대 후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거듭나야겠다고 기업혁신에 도전한 기업의 성공률은 무려 71.4%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가 80년대 전반기에는 47.2%로 떨어졌고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무려 37.3%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있는 사실은, 기업혁신에 나서는 기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을 선도한 기업이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